한국인의 주거의식 행태에 순응하는 실내공간 계획을 위한 다차원 구조적 접근

Multi-Dimentional Scaling Analysis for Interior Space Planning Correponding to Korean Housing Behavior

이 연 숙* Lee, Yeun Sook
장 순 원** Chang Soon Won
안 지 영*** Ahn Ji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spatial structre among residential behaviors in relation to work space. To find the structure, Multi-Dimentional Scaling analysis was used. Respondents were 349 middle income housewives living in apartments in the area of Caopital region. Data were collo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future residential interior design, following points were sugtested. A laundry space neess to be developed independently, being separated from both bathroom and kitchen/dining space. a new area which will give housewives some territoriality and also function as home office needs to be considered. A space configuration which satisfies the organic relationships among laundry behaviors such as washing, dying, ironing and folding, needs to be systematically planned, with two adjoining separate zones of wet and dry utility. The present bathroom nees to be more incorporated to the private bedroom rather than to workspace.

I. 序

주택의 물리적 공간은 문화적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생각과 의미에 연결되어 있다. 즉각 나라마다 주택내 각 공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미 그리고 그 공간의 사용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 주의식과 행태에 따라 주택의 평면구성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나라의 전형적인 평면들을 비교하여 이들에게 발견되는 차이는 평면 그 자체 차이외에 그것에 내재하는 주위식과 행태의 차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국내적으로 문화가 열리는 소위 수평문화권 시대에, 각 나라의 문화적 주체성(Cultural Identity)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국 각 나라 거주자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 문화적 모방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여 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서구의 영향을 받아 우리 문화권에 맞는 창조보다는 부화뇌동격인 모방이 많아왔음을 지적받아 왔기에 더우기 이 부분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택개발시 한국적 문화를 수용 발전시킬 수 있는 예제가 많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위해서도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 문화적 생활행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의식, 행태에 맞는 즉 주생활 양식에 적합한 주거평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거공간의 주요영역인 작업공간 체계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공간 체계는 과거 침실의 갯수, LDK연결형태, 그리고 현재 욕실의 갯수가 우리사회 주거공간 규범을 논하는데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만큼, 미래 규범을 논하는데 중요하게 보아진다. 즉 주택건설업체는 소비자에게 유인가가 높은 평면을 제공하려 하는 기업전략을 더욱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여성의 위치및 여성들이 행해온 가사작업관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추세에 근거하면 작업공간이 가져야 하는 생활에의 지원성(affordance)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작업공간 관련 행위들은 현재 작업공간 및 위생, 개인공간에 흩어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체계는 이들 공간들 모두의 관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들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을 모두 다루고, 또한 현재의 실내공간 구성체계와 행위들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이상적인 공간구성 체계를 비교하여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 청구 학술연구비 수혜 연구인 "수도권 신주거 계획지역 거주 여정자의 특성 및 주거환경적 성향에 관한 연구"의 내용중 일부임. 전문 보고서는 주식회사 처우와 연세대학교 이연숙 교수 연구실에 있음.

*부회장,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부교수.
**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연구원. 상명여대 강사
***정회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원.

2 문헌고찰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 연구가 아니며 환경디자인을 위한 환경심리·행태적 연구이나, 문화적 고찰을 하는 것은 본 연구 문제 제기를 명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평면의 차이는 외국의 평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더욱 상대적으로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각 나라의 평면차이 비교분석에 관한 문화적 접근연구는 로렌스(Lawrence, 1980, 1981, 1982, 1983)의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일본, 미국주택의 평면을 사례접근식으로 비교를 하고 영국과 호주 주택의 평면은 로렌스 연구를 종합 소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는 선행학술 연구에서 이미 과학적 방법으로 유형화한 것도 아니고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분류방법을 통하여 제시한 것도 아닌, 일본 주택들의 많은 예제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들(林知子 1989 : 三川榮吉 1988 : 岸本幸臣. 松田誠偏 1985)과 미국의 가장 보편적인 주택평면을 종합하여 소개하고 있는 잡지(pollman, 1976)에서 본 연구팀이 다양한 형태별로 추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논하기에는 지면관계상 무리이므로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조직분석한 학술연구이므로 이를 비중있게 소개하고자 한다.

2-1. 일본과 미국 주거평면의 특성

문헌에서 나타난 일본의 단독주택, 집합주택의 주택평면들을 살펴본 결과 일본 주택에서 나타난 작업, 위생공간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은 변소, 욕실, 세면실이 한곳에 모여있으나 하나의 공간형태로 있지않고, 이 세 공간들이 대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들 분리되어 있는 양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세면실을 통해 욕실과 변소로 접근하는 평면유형으로 대부분 세면실내에 세탁기가 놓여 있어 세면실 내에서 탈의와 세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둘째, 욕실, 세면실, 변소의 세 공간이 서로 접해있으며 욕실은 세면실을 통해 접근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소는 다른 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평면유형이다. 역시 세면실내에서 탈의와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째, 욕실은 세면실을 통해 접근하고 변소는 별도의 다른 문을 통해 접근하도록 되어 있되, 이 세 공간이 서로 인접해 있지 않은 평면유형이다. 이 경우 역시 세면실 내에서

탈의와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욕실, 세면실, 변소가 공간상의 문제로 인해 서로 인접해 있지 못할 경우에는 변소가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듯하다. 네째, 욕실, 세면실, 변소이외에 탈의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평면유형으로서 여기서 탈의 및 세탁이 이루어진다.

이상과 같이, 네가지 평면유형을 살펴보면 일본주택에서 위생공간의 위치는 개인실과 인접해 있기 보다는 부엌(작업공간) 이나 공동공간과 인접해 있는데, 부엌과 인접한 경우는 부엌과 위생공간 모두가 사용하므로 서로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주택의 작업, 위생공간의 전반적인 성향은 욕실, 부엌, 변소, 탈의, 세탁실이 모두 인접해 있는 일본의 주택과는 달리, 욕실은 개인공간인 침실쪽에 통합되어 있고 다용도실 개념이 욕실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오히려 부엌과 인접 혹은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성향을 지닌 미국 주택의 평면을 살펴본 결과 주택의 평면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었다.

첫번째 유형은 욕실은 침실과 통합되어 있고, 세탁기가 있는 세탁실(laundry) 혹은 가사작업실(utility)이 부엌에 통합되어 있거나 인접해 있는 동시에 차고와 연결되는 곳 혹은 현관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외출후 차고, 혹은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옷을 벗어 세탁기가 있는 공간에 두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강조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가사작업실에 인접해 있는 유형은 욕실이 아닌 변기와 세면기가 갖추어진 화장실 형태가 대부분이다. 두번째 유형은 세탁기가 놓여 있는 세탁실이나 가사작업실이 개인실들이 모여있는 복도에 위치하는 유형으로, 이런 경우 방들이 있는 복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거나 주침실과 가까운 쪽에 위치하며 이때의 세탁실은 탈의의 개념은 없고 단지 각 방들에서 나오는 세탁물들을 모은다는 의미를 지닌다. 부엌과 세탁을 하는 곳과의 관계에서는 이 두 공간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 인접하지는 않으나 평면상으로 일직선인 경우, 서로 인접하지도 평면상 일직선도 아닌 경우등 어떤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세번째 유형은 세탁기가 놓여 있는 공간이 실내가 아닌, 차고나 혹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취하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주택에서 위생공간의 위치는 개인실에 인접해 있으며 세탁실을 일본처럼 욕실이나 세면실에 밀집해 있지는 않으며 일본의 일관성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 수 있다. 일본이 세탁장소를 탈의를 강조하여 욕실/세면실 근처에 두었다면 미국은 작업영역내에 두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차고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입구등에 세탁기를 둔 특성들은 미국문화권에서만 보여지는 예라 할 것이다.

2-2 영국과 호주의 주거평면의 특성

로렌스(1980, 1981, 1982, 1983)는 주거공간의 의미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는 영국과 호주 두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주택공간과 설비의 의미와 용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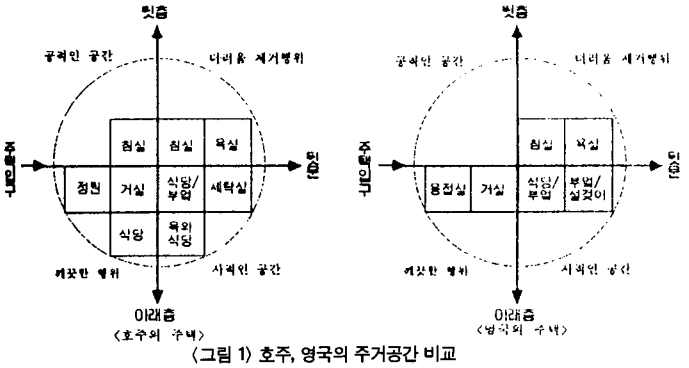
한편 위의 〈표 1〉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표 1〉과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영국, 호주 두나라 주택평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작업, 위생공간으로, 호주에서는 물을 쓰는 행위인 요리와 세탁이 같은 부류행위로 간주되지 않고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부엌은 요리외에 가족간 사화작용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요리와 세탁행위가 부엌공간에 통합되어 있어 같이 물을 사용한다는 점과 작업의 유기적 통제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2〉와 같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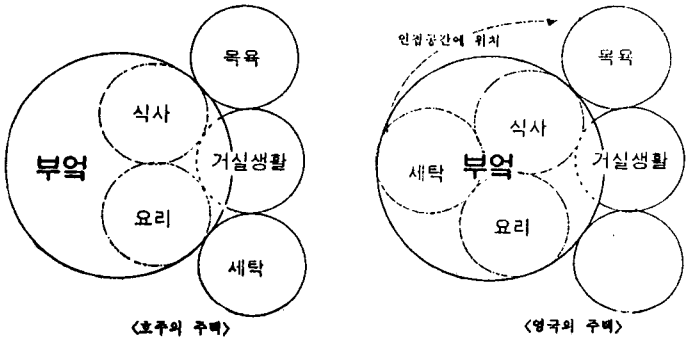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중산층을 대규모로 수용할 계획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지역 아파트에 거주할 예정인 가구로 하였다. 즉 이 지역 아파트에 신청응모한 자들중 규모, 전용면적 20-60평사이의 아파트에 당첨된 가구로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당첨된 가구중 무선추출한 일정수의 가구에 협조의사를 묻는 수취인 부담엽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발송하여 협조의사를 표해온 349가구에 설문지 응답사례품을 보내 응답하게 하였다.

〈표1〉영국과 호주 주택 공간의 의미와 용도 차이점 비교

공 통 점	
1. 거실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식사, 조리, 설겆이등의 행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연결되어 있지 않음. 2. 주택의 정면은 공적이며 장식적이고, 후면은 가정의 서어비스나 허드렛일이 일어나는 장소로 구성되어 있음. 3. 가사일을 할때 남자는 주로 정원, 차고, 헛간을 사용하고 여자는 부엌을 사용하고 있었음.	
차 이 점	
작업 생리위생 공간	영국 : 설겆이 세탁등은 하나의 공간에서 하고, 욕실을 인접공간에 위치함. (설겆이, 세탁물 더러움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부류의 행동으로 간주) 호주 : 부엌, 세탁실, 욕실공간이 모두 분리되어 있음.
침실	영국 : 주로 밤에 사용하며 2층에 위치, 밤낮에 따른 공간분리가 명확함. 호주 : 밤낮에 따른 공간의 분리 사용이 명확치 않음.
테라스	영국 : 대문과 현관을 이어주는 통로구실을 하는 집밖의 공간으로 간주함. 호주 : 테라스에서 시각적 청각적 프라이버시를 부여해 가족활동이나 개인의 여가를 위해 사용.
부엌	영국 : 가사일을 위한 장소로 생각함. 호주 : 어린이를 감독하며 친구를 접대하는등 부엌을 가족전체를 위한 방으로 간주함.
식사공간	영국 : living-dining 혹은 dining-kitchen에서 식사함. 호주 : dining-kitchen에서 식사함.
응접실 거실	영국 : 응접실은 깨끗하고 상징적이며 공적이고 주택의 정면에 위치. 친구들은 거실에서 접대. 호주 : 업격한 의미의 응접실 개념이 없음.



〈그림 1〉 호주, 영국의 주거공간 비교



〈그림 2〉 호주, 영국주택에서 부엌 및 가사작업 행위및 공간시설의 비교

조사내용으로는 주택내에서 각 생활행위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사이의 거리정도 및 각 생활행위들의 성격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주택내 각 공간 사이의 거리 정도, 세탁기 위치, 욕실의 구성 및 필요갯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부분인 유사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방법은 13종류의 행위들이 2개씩 쌍으로 제시된 78개의 항목에 대해, 그 행위들이 일어나는 현재거리와 이상적인 거리를 답하게 하였다.

척도는 13종류의 행위가 일어나는 현재 거리의 경우 아주 가깝다에서 아주 떨어져 있다는 5점의 척도를, 이상적이라 생각되는 거리의 경우도 아주 가까와야 한다에서 아주 떨어져 있어야 한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현재와 이상 각각 78개의 응답은 SAS IML을 이용하여 13×12 Matrix 2개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Systat을 사용하여 집락분석과 다차원척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료의 신뢰도는 같은 사실을 측정하는 두가지 항목들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그 계수가 0.98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조사결과 및 논의

4-1. 응답자의 특성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응답가구의 가구주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42.5세로서 30세에서 44세까지가 전체의 64.8%를 차지하며 부인의 평균연령은 39.0세로 30-44세 까지가 전체의 64.7%차지하고 있다. 가족수는 평균 4.1명으로 나타났고 3-5명의 가족이 전체의 89.9%를 차지 하였으며 자녀수는 평균 1.9명으로 1-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전체의 94.7%를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생활 주기는 맏자녀가 취학전인 형성기가 31.5%로 가장 많고, 맏자녀가 대학생인 확대말기와 맏자녀가 국민학생인 확대초기가 그 다음으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이 60.4%의 비율을 보였다. 남편 직업은 사무직이 33.1%로 가장 많고 전문직, 판매서비스직, 관리직, 생산직의 순이었으며 취업 부인의 비율은 18.6%를 차지 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80-160만원 미만이 전체의 59.3%를 차지 하였으며 월평균 생활비는 40-120만원 미만이 전체의 71.2%를 차지하였다.

주거 배경 특성을 보면 현주택의 거주면적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인 경우 평균은 25.7평 이었고 15-35평 까지가 전체의 72.0%를 차지 하였으며 단독주택은 평균 20.3%이었고 10-30평 까지가 전체의 67.8%를 차지 하였다.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평균 방의 갯수는 2.6개로 나타났으며 2-3개가 전체의 80.1%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시내가 7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청평수는 평균 35.9평으로 30-35평 사이와 45평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은 가족수, 자녀수에서는 우리나라 평균에 근사하며, 가구주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생활 주기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는 대표적 특성을 지닌 표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경제적, 주거배경 특성은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18평(분양은 약 25평)에 근거할때 현재 중산층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 거주평수를 고려할때 상향이동된 가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으로 대표적인 중산층의 의식행태를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에 무리없는 표본임을 보여준다.

4-2 가사및 위생공간과 관련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실태

가사작업 및 위생행위 발생실태 조사결과 각 행위가 공간에 대응되는 상황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특정공간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경우로 내의 갈아입는 곳, 일상적인 겉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일상식사 준비 및 설것이 하는 곳, 목욕 세면하는곳, 화장하는 곳 등이 여기에 속하고, 둘째 비교적 여러공간에 분산되어 일어나는 경우로 빨래 하는 곳, 식사하는 곳, 빨래를 개는곳, 빨래를 말리는 곳, 다림질및 옷손질 하는 곳, 머리드라이기 사용하는 곳,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등이 여기에 속한다. 후자의 경우 생활양식이 가구마다 다양하여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이때까지의 주거공간 계획이 이러한 행위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제공해 주려는 노력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점은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가사작업 공간의 구성에서 세탁을 하는 장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장소에는 주로 세탁기가 놓이므로 특별히 세탁기의 위치에 대한 선호를 물었으며 부엌작업대와 나란히가 41.6%로 가장 많고 실내에 있는 부엌과 분리된 다용도실이 32.1%, 욕실내 및 근처가 13.6%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발전해 오면서 세탁기가 놓이는 장소는 주로 실내에 있는 다용도실이었음을 감안할 때 위치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다양한 범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선호는 응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택의 특성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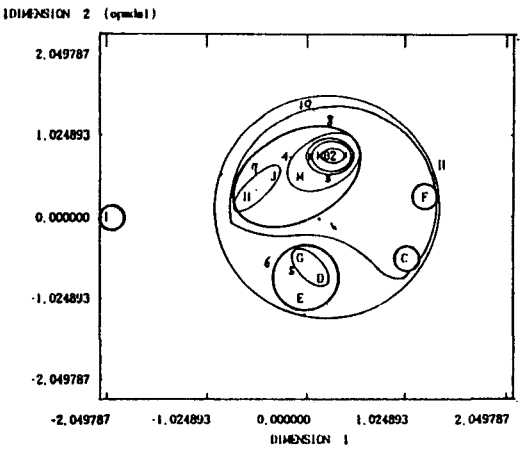
4-3. 응답자의 작업행위 발생공간 구조

현재의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13종류의 행위들을 집락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고, 이를 다차원 분석한 결과에 표현한 것은 〈그림 4〉와 같다.

한편 MDS(다차원 척도 분석)의 순수한 결과는 〈그림 4〉에서 곡선으로 그려진 부분을 제외한 행위 발생 장소의 분포만이 나타난 그림인데, 여기에 집락분석의 결과 나타난 먼저 묶이는 순서대로 묶어 나가는 작업을 곡선으로 표현하고 묶여진 순서를 번호를 기입하였다.

V(1)내의 갈아입는 곳
V(2)일상적인 겉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V(3)빨래하는 곳
V(4)일상식사 준비및 설것이 하는 곳
V(5)김치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및 설것이를 하는 곳
V(6)목욕/세면하는 곳
V(7)식사하는 곳
V(8)빨래 개는 곳
V(9)빨래 말리는 곳
V(10)다림질및 옷손질 하는 곳
V(11)화장하는 곳
V(12)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V(13)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그림3〉 현재 작업공간에 대한 집락분석 나무그림



A:내의 갈아 입는 곳
B:일상적인 겉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C:빨래 하는 곳
D:일상식사 준비및 설것이 하는 곳
E:김치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및 설것이를 하는 곳
F:목욕/세면하는 곳
G:식사하는 곳
H:빨래 개는 곳
I:빨래 말리는 곳
J:다림질및 옷손질 하는 곳
K:화장하는 곳
L: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M: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그림4〉 현재 작업공간 구조 : 다차원 척도및 집락분석 결과

MDS로 나타난 그림의 Stress 값은 0.8456이었다. Stress값이란 다차원 상의 분포가 2차원적인 도면으로 나타날 때 불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값은 0-1사이에 범위를 가지며, 이 값이 클수록 2차원적 평면에 나타나는 분포 구조는 실제 다차원 공간에서의 분포 구조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Stress 값은 .08456이었으므로 실제구조를 2차원 평면이 잘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이들 구조는 공간의 구획을 몇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나, 현재 이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의 특성을 참고하여 집락을 5개로 나누어 보면, 곡선 중 진하게 표현한 것과 같다. 즉, 현재 13개 행위의 발생구조는 내의 갈아 입는 곳, 일상적인 겉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 및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 빨래 개는 곳, 다림질 및 옷손질이 하나로, 식사 하는곳, 일상식사 준비 및 설것이 하는 곳, 김치등 집안의 비 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것이 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하는 곳이 하나로, 목욕/세면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작업, 위생행위 발생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13종류의 행위들의 이상적인 관계자료를 집락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고, 이를 다차원 분석한 결과에 표현한 것은 〈그림 6〉과 같다.

MDS로 나타난 그림의 Stress 값은 .09918로 이값으로 2차원 평면이 실제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13개 행위의 이상적인 발생구조는 내의 갈아 입는 곳, 일상적인 겉옷이나 외출복을 입고 벗는 곳, 목욕/세면 하는 곳, 화장하는 곳, 머리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 개는 곳과 다림질 및 옷손질 하는 곳이 하나로, 빨래하는 곳과 빨래 말리는 곳이 하나로, 가계부를 정리하는 곳이 하나로, 일상식사 준비및 설것이 하는 곳과 식사하는 곳, 그리고 김치등 집안의 비일상적인 행사때 음식준비 및 설것이 하는 곳이 하나로 묶였다.

13개의 행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간구조와 이상적이라 생각되는 공간 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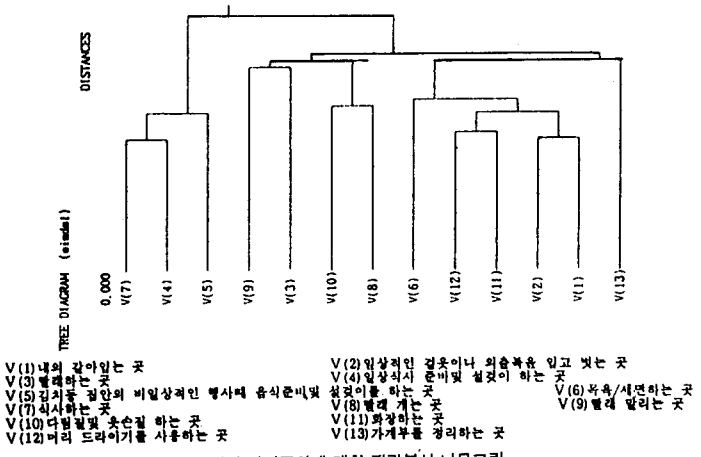
첫째, 빨래하는 행위가 목욕공간으로 부터 분리 되어 빨래 말리는 행위와 한곳으로 묶이고, 목욕 행위는 개인위생 및 관리행위와 묶였다. 둘째, 주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내 사무공간이 개인공간과 작업공간 사이에 독립적으로 출현하였다. 셋째 빨래를 개고 다림질을 하는 공간이 개인공간과 근접하기 보다는 빨래를 하고 말리는 공간에 보다 근접해 있다.

5. 결론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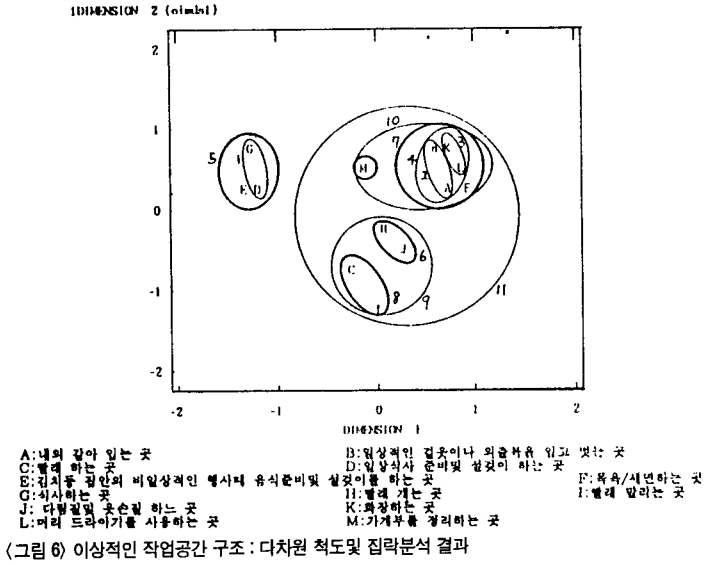
현재와 미래 원하는 작업위생 행위 발생 공간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미래 주택건설업체가 단위주택 실내공간 계획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욕실에서 일어나는 세탁행위는 욕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부엌, 식당과도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가계부 정리등 가사를 관리하는 사무적 업무등은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공간이 주부의 영역성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등장하므로 이를 위한 공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세탁기의 위치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주로 욕실공간 근처에, 미국에서는 부엌근처에 위치시키나, 우리나라는 욕실과 부엌 어느곳에도 통합되지 않는 제3의 연결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주위로 빨래를 개고, 말리고, 다리는 행위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물쓰는 작업과 물을 쓰지 않는 작업공간을 하나의 체재로 잘 연결시켜주는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건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될 경우 이런 구성은 더욱 현실화 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넷째, 위생행위는 개인관리 행위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욕실과 개인공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국적 주거문화를 검토하고 이를 미래 평면에 반영하고자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작업공간 구성에 대한 결과는 건설업체의 미래



〈그림 5〉 이상적인 작업공간에 대한 집락분석 나무그림



〈그림 6〉 이상적인 작업공간 구조 : 다차원 척도및 집락분석 결과

평면형 개발에 적극 이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급하게 공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주택건설 상태에서 문화적 검토없이 평면계획의 방향설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리고 분양가 자율화 및 주문형 주택 등의 보급으로 공간계획적 대안에 더욱 익숙해질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평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이 자료는 적극 활용 될 수 있다.

한국의 주거문화적 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제 디자인 아이디어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용한 다차원 척도 분석은 그 자체가 공간적 거리를 표현해 주는 통계방법으로서 어느 통계적 방법보다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평면계획에 대한 정보를 준다. 이러한 방법은 건축계획, 주거계획 그리고 실내디자인 등에 보다 널리 확산되고 이용되어 응용학문의 효율성을 제시하는데 적극 시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의 규모가 큰 실내디자인 과제일 경우 공간배분 배치계획(space planning)에 직접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그 잠재성이 크다.

이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공간구성에 대해 다루었으나 보다 현실적으로 공간계획을 하려면 평형 규모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가족주기에 따라 행태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이 세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의 공간구조는 물리적 거리 보다는 접근의 용이성을 나타내 주는 거리구조로서 주어진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융통성있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창조적인 실내디자이너의 시각적 구체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은 p.66으로 계속됩니다.